

##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별 인지 위계: 구성주의 레퍼토리 그리드 기법의 적용\*

황 선 정<sup>†</sup>

마음여행 심리상담연구소

조 성 호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구성주의 자기 조직화 개념으로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인지 위계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987명의 대학생 중 병리적 자기애 질문지 절단점을 적용하여 대학생 132명을 선별한 후 이 중 레퍼토리 그리드 인터뷰에 응한 95명의 병리적 자기애 웅대성, 취약성, 분화, 통합 점수를 군집 분석하여 하위유형으로 구분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분화형, 웅대통합형, 취약형, 취약웅대형 등 4개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각 군집의 심리 정서적 특징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4개 군집은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인지위계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레퍼토리 그리드로 도출된 중심 구성개념을 웅대성과 취약성으로 평정하고, 일원변량 분석을 통해 각 하위유형별 중심 구성개념의 웅대성, 취약성 각각에 대한 강도, 기여도, 인접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각 하위 유형들은 중심 구성개념의 강도와 기여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연구의 제한점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병리적 자기애 하위유형, 레퍼토리 그리드 기법, 인지 위계, 중심 구성개념

\* 본 연구는 황선정의 2014년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황선정, 마음여행 심리상담연구소, (07261)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 1로 50, 612호(당산동 3가, 더파크 365), Tel : 070-8600-6888, E-mail : jabihwang@hanmail.net

겉으로 보기에 양립이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개의 이질적 속성, 즉 웅대성과 취약성이 한 성격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병리적 자기애성 성격(이하 병리적 자기애)<sup>1)</sup>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높은 자기 가치감을 지닌 듯 보이지만 실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 평가에 쉽게 위협받고 과도하게 민감해지는 모순을 안고 있다(Morf & Rhodewalt, 2001). Robins, Tracy와 Shaver(2001)가 이런 역설을 '의식적 우월감, 무의식적 자각지심'이라고 표현하였듯이, 이들은 자신의 취약성을 무의식 아래 분열(splitting)시켜 놓은 채(Kernberg, 1975/2008) 자신의 웅대성을 외부로부터 오는 칭찬, 인정, 경탄 등에 의해 확인받는데 몰두한다. 이런 노력은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 가치감을 확증할 만한 외적 자극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게 됨으로써 만성화된 자기 영속적 강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낸다(Dimaggio et al., 2002). 이런 웅대함에 대한 집착은 Morf와 Rhodewalt(2001)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는 멈출 수 없는, 마치 '끊임없는 노동(endless labor)'이 되어 버린다.

병리적 자기애가 보이는 웅대한 자기애에 대한 몰두는 자기애 연구에서 자기보고식 방법론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만든다. Zeigler-Hill, Green, Arnau, Sisemore와 Myers(2011)은

1) 자기애 개념정의의 분명히 할 때 치료적 전략 수립도 명확해지기 때문에 '건강한 자기애', '병리적 자기애 성격 특징', '병리적 자기애성 성격 장애' 등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Alarcón & Sarabia, 2012). 본 연구에서는 환자 집단이 아니라 준임상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본고에서 지칭하는 '병리적 자기애'는 '병리적 자기애성 성격' 혹은 '병리적 자기애 성향' 차이를 밝혀둔다.

자신에 대해 과한 긍정적 표상을 갖고 있는 이들의 자기 보고 내용에는 인지적 편향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하였다. Gunderson, Ronningstam과 Bodkin(1990)도 자기애는 자기 자신을 현실적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특질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자기보고식 도구들은 이들의 방어적 반응을 더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겉모습이 아닌 실제 내적 세계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자 함에 있어서 자기보고 이외의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에는 범주판단과제나 뇌파 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한 자기애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수정과 권석만(2010)은 자기애 성향자의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지각적 민감성 연구에서 의식적 수준의 반응민감성이 아닌 초기 정보처리 수준의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범주판단과제를 사용하였고, 양진원(2012)은 자기애적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그 당시 전두엽의 좌우비대칭 변화를 확인하고자 전두엽 뇌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기보고 방식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자기애 성향자들의 내적 취약성이 포착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병리적 자기애의 내적 취약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것 외에도, 이들이 왜 어떻게 해서 웅대성에 집착하게 되는지 그 기제에 대해 이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자기우월감이 만연되어 있고 친밀한 관계형성에 무관심한 병리적 자기애 내담자들은 심리치료 장면에서 상담관계 형성이 특히 어렵다(Beck, Freeman, & Davis, 2004/2008; Dimaggio, Semerari, Carsione, Nicolò, & Procacci, 2007). 따라서 상담자가 이들이 왜 이토록 웅대성에 집착하는지를 이해한다면 치료적 공감을 이끌어내기가

한결 수월해 진다. 더 나아가 이들이 웅대한 자기에 몰두하는 양상은 모두 비슷한지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다. 이런 이해를 통해 병리적 자기에 내담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성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구성주의 심리학이 표방하는 인간관은 병리적 자기에가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해 근원적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또 구성주의 심리학이 보유한 방법론은 자기보고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이 자신과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에 직접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Dimaggio et al., 2008). 구성주의 심리학(개인 구성개념 심리학,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의 창시자로 알려진 Kelly (1955)에 의하면 개인이 경험하는 실제(reality)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의미창출 과정에 의해 구성된 상대적인 것이다. 이 맥락에서 본다면 자기(self) 또한 구성작용의 산물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응집되고 통일된 자기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는데 자기를 구성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자기 조직화(self-organization)이다(Mahoney, 1988). 원래 복잡계 과학에서 나온 자기 조직화 개념을 '자기'에 적용한 Guidano (1987)에 의하면, 무기물질을 스스로 조직화하여 항상성을 유지하고 생존해나가는 유기체와 같이, 인간도 자기에 대한 지식과 구조들을 조직화하는 존재이다. 즉, 자기와 일치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불일치하는 정보는 걸러내는 조직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자기 시스템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다(Nowack, Vallacher, Tesser, & Borkowski, 2000).

자기 조직화 과정을 끊임없이 시행착오적으로 겪으면서 인간은 마침내 자기만의 고유한 역사적 연속성과 독특성을 지닌 존재로 스스로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Guidano, 1987). 이 전체에 따르면 병리적 자기에 성향자 또한 '빛나고 거대한 자기'를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기 조직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즉 자신과 관련된 외부의 자극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웅대성과 취약성을 조직화하여 자신의 웅대함을 확인하고자 할 것이다(황선정, 조성호, 2015b).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이 그토록 웅대함에 몰두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 항상성 유지를 위한 유기체적 자기조절 과정일 수 있다(Dimaggio et al., 2002).

병리적 자기에가 자기 조직화를 통해 자기를 유지한다면 그 양상은 모두 같은 것인가 질문할 수 있다. 자기 조직화에는 두 차원이 존재하는데 분화(differentiation)와 통합(integration)이 그것이다. 분화란 개인이 자신을 조직화함에 있어서 다양하고 혼재된 방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통합이란 단일하고 고정된 방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황선정, 조성호, 2015b). 분화와 통합은 개인이 자신과 세상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심리적 환경에 비유될 수 있으며, 분화 차원이 우세한지 통합 차원이 우세한지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서는 동그라미가 너무 중요해서 세상을 온통 동그라미로만 보게 하는 안경(동그라미로 통합되는 안경)을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네모인지 모호하여 아주 혼재된 모양으로 보게 하는 안경(분화된 안경)을 쓰는 사람도 있으며, 그 수준이나 강도 또한 개인마다 다르다.2)

병리적 자기에가 자신의 웅대성과 취약성을 조직화함으로써 자기를 유지한다면, 결국 이들의 개인차는 웅대성 및 취약성의 상대적 크기, 분화 및 통합의 상대적 비중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즉 동일한 웅대성이라도 그것이 분화되는 방향으로 조직화되는가, 아니면 통합된 방향으로 조직화되는가에 따라 병리적 자기에의 양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병리적 자기에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웅대성 혹은 취약성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직화시키는 구조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분화 및 통합이 어떤 수준을 이룰 때 심리적으로 건강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인간의 정보처리 유용성을 연구한 Suedfield(1994)에 의하면, 인지 복잡성이 분화에서 통합으로 단계적으로 발달해가면서 분화와 통합이 모두 높아지고 궁극에는 통합적 복잡성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Suedfield(1994)의 관점이 비교적 잘 기능하는 사람의 사회적 정보 처리의 융통성을 탐색할 때는 유용하지만, 정신분열증, 우울증 환자, 병리적 자기에 등과 같이 임상적 증상을 지닌 사람의 인지 복잡성을 연구할 때는 다를 수도 있다(황선정, 조성호, 2015b). Bannister(1960)의 연구에서 정신분열증 환자의 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 Feixas, Erazo-Caicedo, Harrer와 Bach(2008)의 연구에서 우울이 높을수록 통합 점수가 높았던 점, 황선정과 조성호(2015b)의 연구에서 병리적 자기에의 웅대성 점수와 통합의 상관(0.35)의 상관( $p < .01$ )을 보였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임상적 증상을 지닌 사람들의 높은 분화 혹은 통합 수준은 그들의 증상을 더 심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분화 혹은 통합 단일 차원의 수준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분화 및 통합 모두를 고려하여 일반인 집단과 임상 집단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황선정과 조성호(2015b)는 지금까지 자기에의 유형 연구가 인지내용에 의해서만 구분해왔거나, 인지구조에 의해서만 구분해 온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하나의 성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내용과 인지구조가 모두 고려된 유형 분류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연구자들은 병리적 자기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웅대성 및 취약성과 같은 인지내용 지표, 분화 및 통합과 같은 인지구조 지표 등 네 측정치를 군집 분석하여 서로 다른 4개의 하위유형을 도출하였다. 이들 군집의 심리 정서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각 집단은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4개의 하위유형들은 심각성 수준에 따라 하나의 연속적 스펙트럼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자기 조직화 개념을 사용하여 자기에의 하위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그동안 외적 특성에 의해서만 구분하던 방식(예: Wink(1991)의 외현적 자기에 대 내현적 자기에, Gabbard(1998/2005)의 무감각형 자기에 대 과민형 자기에, Ronningstem(2009)의 적대형 자기에 대 병질형 자기에 대 수줍음형 자기에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내적이고 근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자기 조직화(인지 구조) 지표를 적용하여 구분한 각 하위유형들이 뚜렷한 임상적 실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부분이다. 하위 유형들은 서로 독립적인 임상적 실체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이 실체들은 자기에 이론에서 제시되어 왔던 개념들에 부합되는 것임을 밝혔다. 비교적 병리적 수준이 낮은 분화형은 Millon, Grossman, Millon, Meagher와 Ramath(2004)가 개념화하는 보상적 자기에, 웅대성이 우세한 웅대통합형은 Kernberg(1975/2008)가 개념화하는 자기에,

자신의 웅대성에 대한 수치심을 지니고 있는 취약성이 우세한 취약형은 Kohut(1977)이 개념화하는 자기애, 그리고 취약성과 웅대성이 동시에 높은 취약웅대형은 Dimaggio 등(2007)이 개념화하는 자기애에 부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조직화 기제를 적용하여 병리적 자기애를 하위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라면 각 하위유형들이 겹으로 드러내는 모습 외에 실제 내면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연구 요구가 생길 수 있다. 황선정과 조성호(2015b)의 연구는 하위유형 중 '웅대통합형'과 '취약형'의 외적 특성에 주목하였다. 즉 Wink(1991)가 개념화한 외현적 자기애와 임상적 양상이 비슷한 '웅대통합형'은 부정적 특징(예: 초기부적응 도식, 불안, 우울 등)에 해당하는 점수는 가장 낮고 긍정적 양상의 대인관계 특성이나 성숙한 방어유형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Wink(1991)의 내현적 자기애와 임상적 양상이 비슷한 '취약형'은 초기부적응 도식, 우울, 부정적 대인관계 특성 등 부정적 특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 특징(예: 외향적이고 우호적 대인관계 등)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구자의 또 다른 연구(황선정, 2014)에서는 웅대성이 높은 자기애가 자신을 '전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취약성이 높은 자기애가 자신을 '전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한 것은 방어의 결과물일 수 있다고 하였다. 웅대성이 높은 자기애들이 자신의 취약함을 무의식적으로 분열시켜놓은 채 웅대함만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많은 임상가들(예: Akhtar & Thomson, 1982; Cooper & Ronningstem, 1992; Kernberg, 1975/2008)에 의해 보고되어 온 사실이다. 그러나 취약성이 높은 자기애들의 방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다.

Alatiq, Crane, Williams와 Goodwin(2010)은 이들은 자신을 과장해 보이려는 깊은 소망이 있는데 그와 동시에 그런 소망이 자신들에게 내재하고 있다는 깊은 수치심도 존재하기 때문에 웅대성을 겹으로 드러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겹으로 드러난 양상만을 가지고 웅대성이 높은 자기애(예: 외현적 자기애)가 취약성이 높은 자기애(예: 내현적 자기애)보다 더 적응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웅대성 혹은 취약성을 조직화하는 양상은 배제하고 단지 겹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자기애를 개념화한데서 생긴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자기보고 이외의 방법을 통해 웅대성 자기애의 이면, 취약성 자기애의 이면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탐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방법론은 레퍼토리 그리드 기법(Repertory Grid Technique)이다. 이는 구성주의 연구에서 95%를 차지할 만큼(Dunnett, 1988)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으로서, 자기 및 의미 있는 타인들이 지닌 성격의 유사성과 차이성(즉, 구성개념)을 인터뷰 형식을 통해 도출하고, 그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성의 정도를 리커트 척도로 격자(grid)안에 평정하는 기법이다. 격자 안의 숫자들은 채점과정에서 다양한 수학적 지표들로 요약되는데, Taylor(1990)는 레퍼토리 그리드는 단지 '숫자들의 모음 그 이상'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 수학적 지표들은 인터뷰 참여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 의미(personal and subjective meaning)를 인지적 지도(cognitive map)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퍼토리 그리드는 많은 임상적 증상을 지닌 개인들의 주관적 세계를 탐색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다(예: 만성통증-손정락, 2006; 정신분열증-Bannister, 1960; 우울

장애-Feixas, et al., 2008 등). 예를 들어 Feixas 등(2008)은 주요 우울장애를 포함한 우울장애 환자와 비환자들을 대상으로 레퍼토리 그리드에서 도출된 인지구조 측정치(예: 구성개념의 설명현상-PVAFF: Percentage of Variance Analysis First Factor)들을 분석한 결과 우울장애 환자 집단에서 비환자 집단에 비해 부정적 자기관, 제한된 구성(constriction of construction), 이분법적 사고를 더 많이 드러낸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레퍼토리 그리드 기법을 통해 자기 보고 방식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우울 장애 환자들의 인지 구조 및 인지 과정에 대해 탐색할 수 있었다고 논평하였다. 이처럼 레퍼토리 그리드는 기존의 자기 보고 방식에서 놓치기 쉬웠던 내적, 주관적 세계를 더욱 정교하게 드러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특히 레퍼토리 그리드가 병리적 자기에 성향자들에게 방법론으로 더 유용하게 활용되는 이유는 이들이 지닌 인지 내용적 특수성 때문이다. Beck, Brown, Steer, Eidelson과 Riskind(1987)의 인지내용-특수성 가설(cognitive content-specificity hypothesis)에 의하면 각 정신장애마다 각기 독특한 내용의 사고를 지니고 있는데,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 비판적이고 비관적 인지 도식을 지니는 것에 반해 병리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자기에 대해 과한 가치감을 지니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병리적 자기에의 과한 자기 가치감은 자신의 취약함을 의식으로부터 분열(splitting)시키려는 무의식적 방어에 기인한다(Akhtar & Thomson, 1982). 그러나 이런 취약함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웠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그 이유로 자기 보고식 방법론의 문제를 지목하였다(예: Dimaggio et al., 2008). 레퍼토리 그리드는 연구자에 의해 제시된 설문 문항에 수동적으

로 응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변인들의 성격에 대해 탐색하면서 응답 내용을 스스로 도출해 내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방어에 의해 반응이 왜곡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Dimaggio 등(2008)은 자기에와 같이 자신의 내적 세계를 기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방어적 목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왜곡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연구할 때 레퍼토리 그리드가 유용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레퍼토리 그리드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수학적 지표들을 활용하여 연구에 응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정치를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첫째, 자기 조직화 분화 및 통합 측정치이다. 이는 레퍼토리 그리드상의 인지 복잡성(cognitive complexity: Bieri, 1955) 지표로 도출되는 것으로, 자기 조직화 개념을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계량적 지표로 환원한 것이 인지 복잡성 분화 및 통합 측정치이다(황선정, 조성호, 2015b). 본 연구에서는 이 지표를 사용하여 병리적 자기에의 하위유형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즉 병리적 자기에 질문지 상의 웅대성 점수, 취약성 점수를 인지내용 측정치로 삼고, 레퍼토리 그리드에서 도출된 인지 복잡성 분화 점수, 통합 점수를 인지구조 측정치로 삼아 군집분석하여 유형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둘째, 중심 구성개념 측정치이다. Kelly(1955)에 의하면 개인의 성격을 이루는 기본단위는 구성개념(constructs)인데, 이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 값의 정도에 따라 서열적 관계를 배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른 구성개념들과의 상관 정도가 큰 구성개념이 그렇지 않은 구성개념에 비해 전체 구성 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심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Fransella, Bell과 Bannister(2004)는 이를 그 개인의 중심 구성개념(core constructs)이라

명명하였다. 예를 들어 '성실한'을 중심 구성개념으로 갖고 있는 A와 '예쁜'을 중심 구성개념으로 갖고 있는 B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할 것이다. 즉 A가 "당신은 성실하지 않아"라는 피드백을 받는 것은 "당신은 예쁘지 않아"라는 피드백을 받는 것과는 다른 강도의 자극이 될 것이다. 반대로, B에게 "당신은 예쁘지 않아"라는 피드백은 "성실하지 않아"라는 피드백보다 훨씬 더 큰 자극이 될 것이다. 중심 구성개념은 그 개인이 세상을 지각하는 핵심 인지라 할 수 있는데, 중심 구성개념들을 이론적 개념으로 평정하여 연구에 사용할 수도 있다. 병리적 자기애를 구성하는 두 요인인 웅대성과 취약성을 웅대성, 취약성 구인으로 구성개념을 평정한다면 병리적 자기애의 중심 구성개념에 내재된 웅대성, 취약성 분포를 알 수 있다. 특히 자기 보고에 의해 드러난 웅대성 및 취약성 양상, 즉 병리적 자기애 질문지 상의 웅대성 및 취약성 점수 분포와 제 3자 평정으로 얻어진 구성개념의 웅대성 및 취약성 양상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병리적 자기애의 방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심 구성개념의 위계 측정치들이다. 개인의 구성 시스템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항상 유동적이다. 구성주의에서 구성하다(construe)의 어원이 라틴어로 'construere' 즉 '구조를 배열하고 형태를 부여하다'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Mahoney, 2003), 중심 구성개념들은 그들끼리 지니는 관계성에 따라 상호 위계를 부여하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즉 중심 구성개념이 전체 구성 시스템에 미치는 파급력(중심 구성개념의 강도), 중심 구성개념 각각이 전체 구성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중심 구성개념의 기여도), 그리고 중심 구성개념과 의미상 유사성을 지니는 구성개념

들의 거리값(중심 구성개념간 인접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구성 시스템에 위계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웅대성과 취약성으로 평정된 중심 구성개념들의 위계 측정치들의 분포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병리적 자기애가 각기 어떤 방식으로 웅대성과 취약성을 조직하는지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레퍼토리 그리드를 적용하여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중심 구성개념의 웅대성 및 취약성 인지위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군집분석을 통해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의 제반 심리 정서적 특징에서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심리 정서적 특징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한 변인은 초기부적응 도식, 방어유형, 우울, 불안, 대인관계이다. 이들 변인은 병리적 자기애의 취약함을 유발시키는 특성(초기 부적응 도식), 그 취약성을 보상하기 위한 기제(방어유형), 그리고 그 결과물(정서 및 대인관계) 등 병리적 자기애의 심리과정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인들이다(황선정, 조성호, 2015a).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웅대성, 취약성과 같은 인지 내용 지표와 분화, 통합과 같은 인지 구조 지표를 조합하면 서로 다른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으로 구분되는가?

1-1. 병리적 자기애 질문지 상의 웅대성, 취약성 측정치와 레퍼토리 그리드 상의 인지 복잡성 분화, 통합 측정치를 투입하여 군집 분석했을 때 자연발생적인 하위유형으로 구분될 것이다.

1-2. 각 하위유형은 심리 정서적 특징(예: 초기부적응 도식, 방어유형, 우울, 불안, 대인관

계)에서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2.** 각 하위유형들은 서로 다른 인지 위계 특성을 보이는가?

2.1. 각 하위유형들의 웅대성 중심 구성개념 및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은 중심 구성개념의 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2.2. 각 하위유형들의 웅대성 중심 구성개념 및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은 중심 구성개념의 기여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2.3. 각 하위유형들의 웅대성 중심 구성개념 및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은 중심 구성개념의 인접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 방 법

### 연구 참여자

수도권 지역 소재 대학생 98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불성실 응답자 등을 제외한 899명의 자료가 수거되었다. 이 중에서 황선정과 조성호(2015a)의 연구에서 병리적 자기에 집단의 선별 기준으로 제안한 병리적 자기에 질문지(PNI) 절단점 2.73 이상을 적용하여 총 132명을 선별하였다. 이들에 대하여 연구자가 후속 연구(레퍼토리 그리드 인터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이에 자발적으로 응한 95명이 최종 연구 참여자가 되었다. 95명의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자는 28명, 여자는 67명이었고, 나이는 18세~28세(평균 22.93세, 표준편차 2.44) 범위 내에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PNI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3.20과 0.35였다.

### 레퍼토리 그리드 인터뷰와 인지 측정치 도출 및 구성개념 평정

본 연구 절차는 총 4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레퍼토리 그리드 인터뷰 단계, 그 다음 레퍼토리 그리드 채점결과를 바탕으로 인지 측정치 및 중심 구성개념을 도출하는 단계, 그 다음은 중심 구성개념을 평정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평정된 중심 구성개념들의 위계를 측정하는 단계이다. 레퍼토리 그리드 인터뷰 실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요소(elements)를 도출하는 단계로, 요소란 인터뷰 참가자의 '자기 자신 및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인들(예: 부모님, 스승, 친구, 이상적 자기, 싫어하는 사람 등)'을 의미한다. 진행자는 빈 카드를 나누어 주며 참여자에게 자기 자신, 이상적 자기, 싫어하는 사람을 포함한 가까운 사람 12명을 떠올리고 그 이름(혹은 약자)을 적게 한다. 그 다음 구성개념(constructs)을 도출하는 단계로 넘어 간다. 구성개념이란 위 요소들 간의 성격상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형용사들을 의미한다. 즉, 12명의 요소들 중에서 무작위로 두 사람씩 골라서 그 두 사람이 지닌 성격이 비슷한지 혹은 다른지를 떠올려보게 하고, 비슷하다면(혹은 다르다면) 어떤 점이 비슷한지(혹은 다른지) 형용사 형태로 표현해 보도록 한다. 참여자가 떠올린 형용사를 진행자가 기록지에 옮겨 적은 다음 그 형용사와 반대되는 형용사가 무엇인지 참여자에게 질문하고 참여자가 떠올린 형용사를 진행자가 마찬가지로 기록지에 옮겨 적는다. 반대 형용사 도출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사전적 반대 의미가 아니라 참여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반대되는 형용사를 떠올리도록 독려하는 것이며, 이것이 그 개인의 개별 기술적 레퍼토리, 즉 그 개인

의 구성개념이 된다.<sup>3)</sup> 그 다음 요소 중 또 다른 두 명을 골라 구성개념 쌍을 도출하면서 총 12쌍, 24개의 구성개념이 도출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sup>4)</sup> 인터뷰 마지막 단계는 평정(rating) 단계로서, 평정은 각 요소들에 대해 구성개념들이 가지는 값들을 리커트 척도(예: 7점 척도) 내에서 참여자가 스스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 요소에 대해 '친절한~불친절한' 구성개념을 7점 척도로 평정한다고 했을 때, 매우 친절하면 1점, 꽤 친절하면 2점, 약간 친절하면 3점, 중간이면 4점, 약간 불친절하면 5점, 꽤 불친절하면 6점, 매우 불친절하면 7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이 과정을 모든 요소에 대해 반복한

다. 전체 소요시간은 1인당 평균 30분~40분 정도이며, 이 절차가 끝나면 레퍼토리 그리드 자동 채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예: GRIDCOR 4.0)에 연구자가 요소, 구성개념, 평정 결과를 입력한 후 그 결과를 해석하게 된다. 채점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수학적 논리는 주로 상관분석, 주성분분석, 거리분석, 군집분석, 대응분석 등이며, 그 결과물들은 요소들 간 관계성, 구성개념들 간 관계성, 각 요소와 구성개념 간 관계성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레퍼토리 그리드 인터뷰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Neimyer, 1992), 진행 방식의 자율성은 경험적 연구에서 연구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레퍼토리 그리드 실시 절차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Mackay,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레퍼토리 그리드 매뉴얼 2판(Fransella et al., 2004)을 참조하여 전체 진행 절차를 표준화하였고, 진행자가 달라질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혼입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인터뷰를 연구자 1인이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레퍼토리 그리드에서 도출한 인지 측정치는 총 3종류이다. 첫째, 하위유형 분류를 위한 인지 복잡성 분화 및 통합 측정치, 둘째, 중심 구성개념 측정치, 셋째, 중심 구성개념의 위계 측정치(강도, 기여도, 인접도 측정치)이다. 레퍼토리 그리드에서 산출되는 인지 복잡성 분화 및 통합 측정치는 여러 개가 있는데, 황선정과 조성호(2015b)는 구성주의 이론에 가장 합치되는 인지 복잡성 분화 및 통합 측정치를 채택하였다. 분화 측정치는 Landerfield(1971)에 의해 고안된 FIC5(Functionally

5) 인지 복잡성 측정치들은 해외에서 만들어진 레퍼토리 그리드 전산 프로그램에서 산출되는 결

- 3) Kelly(1955)에 의하면, 구성개념은 양극성을 지니며 그 개인의 주관적 구성세계는 반대 구성개념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더 명료해 진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쾌활한'의 반대 구성개념은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한'일수도 있고, '소심한'일 수도 있으며, '침울한'일 수도 있다. '쾌활한'의 반대개념을 '조용한'으로 구성하는 사람과 '소심한', 혹은 '침울한'으로 구성하는 사람의 주관적 세계는 저마다 각기 다르다는 것이 구성주의 이론의 가정이다.
- 4) 원래 레퍼토리 그리드를 연구 목적이 아니라 심리치료 과정에서 내담자의 구성개념을 도출할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요소와 구성개념 개수를 정하지 않고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를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할 때에는 일정한 개수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요소와 구성개념을 각각 몇 개씩 도출하는가는 연구설계 단계에서 연구자가 정할 수 있다. 레퍼토리 그리드 매뉴얼 2판(Fransella et al., 2004)에서는 10개~20개의 요소 및 구성개념이 적절한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요소와 구성개념을 각각 12개씩으로 정한 것은 수차례의 예비 시행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피로도 및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Independent Construction) 측정치로서 '개인이 사용하는 구성개념 차원의 수'로 정의된다. 그리고 통합 측정치는 Fransella 등(2004)에 의해 소개된 extremity 측정치로서 '특정한 구성개념을 선취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위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FIC의 1개월 전-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 (Angelillo, Cimbalic, Doster, & Chapman, 1985)로 보고되었다. extremity의 1개월 전-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1(Feixas, Moliner, Montes, Mari, & Neimeyer, 1992)로 보고된 바 있다.

중심 구성개념 측정치는 Kelly(1955)가 구성개념들 간의 연결 강도로 정의한 intensity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intensity 측정치는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값을 평균한 것인데 레퍼토리 그리드 분석 결과로부터 각 개인의 intensity의 평균값을 얻을 수 있다. 개인이 보유한 여러 구성개념들 중에서 intensity 평균값 이상에 해당하는 구성개념들을 추출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전체 구성개념 중에서 연결 강도가 평균 이상에 해당하는 구성개념들, 즉 그 사람의 중심 구성개념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 구성개념의 인지위계를 검토하기 위해 중심 구성개념들을 평정할 필요가 있었다. 병리적 자기에의 인지 위계는 웅대성과 취약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평정될 수 있다. 이렇게 평정된 중심 구성개념들의 위계 측정치를 조사하면 병리적 자기가 자신의 웅대성 중심 구성개념, 혹은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평정 작업은 자기에 연구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질 때 신

뢰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Lynam과 Widiger(2001)의 '전문가 평정' 정의에 따라 '자기에 유관 연구 최소 1편 이상을 학술지에 출판한 전문가' 2인에게 평정을 의뢰하였다. 평정자들이 자기에의 웅대성 및 취약성 개념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하더라도 일관된 평정 지침에 따르는 것이 연구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평정에 앞서 연구자가 '웅대성 및 취약성 개념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평정자들에게 제공하였다. 개념 정의 지침은 자기에 관련 문헌에 나타난 자기에의 임상적 특징에 대한 기술들, 자기에 진단 도구 및 척도에 제시된 웅대성 및 취약성 개념에 대한 기술들(예: 강선희, 2002; Akhtar & Thomson, 1982;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Emmons, 1984; Kernberg, 1975/2008; Kohut, 1977; Millon et al., 2004; Morf & Rhodewalt, 2001; Pincus et al., 2009; Raskin & Hall, 1979; Ronningstam, 2009)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두 전문가들은 평정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중심 구성개념 평정지에 각 구성개념이 웅대성에 해당하는지 혹은 취약성에 해당하는지를 표기하였다. 비록 자기에 하위유형 모두에 공유되는 특징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되게 발현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각 중심 구성개념들을 웅대성(G: Grandiosity) 혹은 취약성(V: Vulnerability) 하나에 할당하도록 하고, 어떤 요인에도 해당되지 않거나 판단이 안되는 경우는 ns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두 전문가 간 평정 일치율은 Cohen(1960) kappa 공식을 이용하였다. 개념 정의 지침과 평정 예시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서, 평정된 웅대성 중심 구성개념,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들의 위계를 파악하는 단계가 진행되었다. 본

과지표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번역 없이 원어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연구에서는 이 위계를 3가지 조작적 정의에 의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중심 구성개념의 강도, 기여도, 인접도가 그것이다. 중심 구성개념의 강도는 중심 구성개념들 각각이 지닌 intensity 값을 사용하였다. 구성개념의 강도가 높을수록 그 구성개념과 다른 구성개념들 간의 연결성이 높다는 의미인데, 이는 그 구성개념이 다른 구성개념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심 구성개념의 강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이를 레퍼토리 그리드 채점결과로부터 도출하는 과정을 예시를 통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은 사례 1의 intensity, 즉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 값들의 목록인데, 이는 레퍼토리 그리드 자동채점 프로그램(GRIDCOR 4.0)의 INTENSITY에서 산출된다. 그림 1에서 사례 1번의 각 구성개념별 intensity 값이 제시되어 있고 그 아래 이 사람의 intensity 개인 평균 값(0.16)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에서 이 사람의 구성개념 '다혈질이다'의 intensity 값(0.18)은 개인 내 평균값(0.16)보다 높고, '무뚝뚝한'의 intensity 값(0.07)은 개인 내 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 내 평균값보다 높은 intensity 값을

얻은 구성개념들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들이 사례 1의 중심 구성개념들이 된다. 이 사람의 중심 구성개념은 '다혈질이다', '불편한', '나에 대해 부정적인', '공격적인', '무책임한', '무관심한'이다. 이들 중심 구성개념에 대해 G 혹은 V로 평정하였고, G 혹은 V로 평정된 중심 구성개념들의 각각의 평균값을 강도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레퍼토리 그리드 매뉴얼(Fransella et al., 2004)에서 제시하고 있는 강도 측정치의 산출 분석 논리는 상관분석이다.

중심 구성개념의 기여도는 레퍼토리 그리드 분석 결과에서 CTR(Coordinates and Contribution) 값을 사용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각 중심 구성개념들의 CTR 값들은 개인이 지닌 모든 구성개념들을 요인 분석했을 때 제 1축에 수렴되는 구성개념들의 변량을 계산한 값이다. 레퍼토리 그리드 분석 결과에서 이 값들은 0~100 사이에 있게 되는데 이 값이 클수록 그 구성개념이 전체 구성개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값을 '중심 구성개념의 기여도'라고 조작적 정의하였다. 기여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사례 1번의 CTR 값을 그림 2에 제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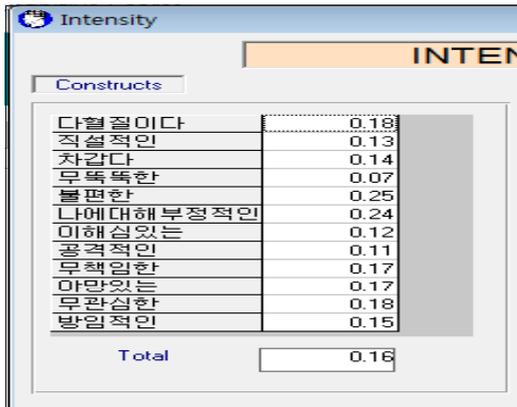


그림 1. 사례 1의 중심 구성개념 강도 산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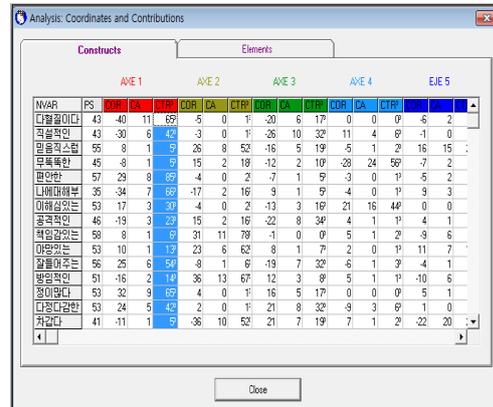


그림 2. 사례 1의 중심 구성개념 기여도 산출 예시

였다. 그림 2에서 제 1축(AXE1)의 CTR 값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구성개념은 '편안한(85), 가장 낮게 나타난 구성개념은 '무뚝뚝한(5)', '차갑다(5)'로서, 사례 1번의 전체 구성개념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구성개념은 '편안한'이다. 그런데 앞에서 제시한 중심 구성개념들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공격적인'은 사례 1의 중심 구성개념에 해당하지만 이것의 기여도는 22로 그리 높지 않다. 기여도는 의식적으로 인식 가능한 구성개념에 해당하는 것이고 중심 구성개념은 의식적으로 인식 가능한 영역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사례 1이 지닌 '공격적인' 구성개념은 다른 구성개념들과의 관련성은 상당히 높아서 그 파급력이 크지만, 이들이 그것을 인식하는 정도는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중심 구성개념들에 대해 G 혹은 V로 평정하였고, 평정된 중심 구성개념들의 각각의 평균 값을 기여도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레퍼토리 그리드 매뉴얼(Fransella et al., 2004)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여도 측정치 산출 분석 논리는 주성분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중심 구성개념의 인접도는 중심 구성개념이 다른 구성개념들과 의미상 유사성을 지니는 정도이다. 중심 구성개념의 인접도가 클수록 그 구성개념과 연결된 다른 구성개념과의 유사성이 커져서 그 구성개념의 의미상 규모 또한 커진다. 인접도는 구성개념들 간의 거리 값으로 구해진다. 거리 값이란 상관 값과 비슷한 개념인데, 상관계수는 값이 커질수록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지만, 거리 값은 값이 작을수록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레퍼토리 그리드 매뉴얼에 의하면 거리 값이 0.20 이내에 있을수록 의미상 유사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Fransella et al., 2004). 인접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사례 1의 인접도 산출과정을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중심 구성개념에 편의상 일련번호를 기입하고(표 1), 웅대성으로 평정된 중심 구성개념들 4개, 취약성으로 평정된 중심 구성개념들 4개를 웅대성 중심 구성개념들의 쌍,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들의 쌍으로 묶어낸다. 예를 들어 웅대성 중심 구성개념들은 일련 번호 8, 11, 15, 18번이고 이들을 쌍으로 묶어내면

표 1. 사례 1의 평정 결과

일련번호	평정 결과
07	V
08	G
11	G
15	G
16	V
18	G
21	V
22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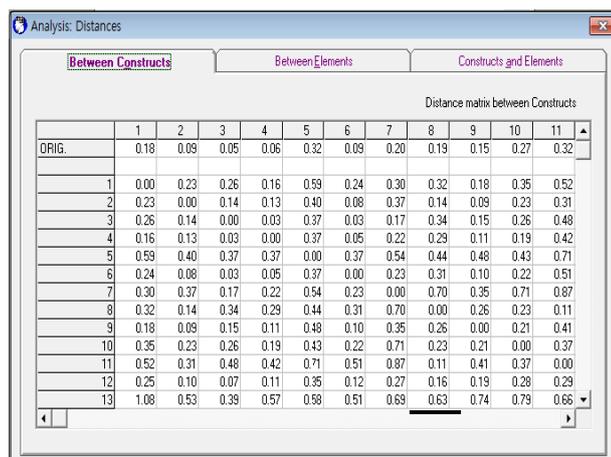


그림 3. 사례 1의 중심 구성개념 거리값 행렬표

8-11, 8-15, 8-18, 11-15, 11-18, 15-18 등 총 6개의 웅대성 쌍이 만들어진다. 이들 쌍 중에서 거리값이 0.20 이내에 해당하는 쌍들만 모아서 그 평균 거리값을 계산하고 이를 웅대성 중심 구성개념의 인접도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그림 3에 각 구성개념들의 거리값 행렬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8-11 항의 거리값은 0.11로 0.20 이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에 대해서도 인접도 측정치를 구한다. 레퍼토리 그리드 매뉴얼 (Fransella et al., 2004)에서 제시하고 있는 레퍼토리 그리드에서 거리값 산출 분석 논리는 대응분석이다.

#### 도구

##### PNI(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본 연구에서 병리적 자기애 집단을 선별하고, 해당 집단의 웅대성 및 취약성 총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이다. PNI는 병리적 자기애성 성격 및 그 하위 요인인 웅대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 Pincus 등(2009)이 제작하였다. 총 52문항으로 6점 척도 상에서 0점과 5점 사이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는 각 문항 응답 값의 평균을 사용한다. 웅대 환상(Grandiose Fantasy: GF), 평가절하(Devaluing: DEV), 착취(Exploitativeness: EXP), 자기 숨김(Hiding the Self: HS), 특권분노(Entitlement Rage: ER), 수반적 자존감(Contingent Self-Esteem: CSE), 자기 희생/자기 고양(Self-Sacrificing/Self-Enhancement: SSSE)의 7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Pincus 등(2009)의 원 척도를 양진원(2012)이 국내에서 번안 및 타당화 작업을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원 척도의 '자기 숨김' 요인

이 제외된 6개 요인으로 나타나 최종 35문항이 선별되었다. 6개 하위 요인 중 웅대환상, 착취, 자기희생-자기고양은 웅대성 요인에 해당하고, 수반적 자존감, 평가절하, 특권분노는 취약성 요인에 해당한다. Pincus 등(2009)의 원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는 요인별로 .78~.93의 범위로 나타났고, 양진원(2012)이 확인한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는 요인 별로 .85~.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양진원이 타당화한 35문항, 6점 척도(0~5점)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는 요인별로 .84~.94의 범위에 있었다.

##### 초기부적용 도식 질문지(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 YSQ-Short Form)

Young(1990)이 개발하고 이미엘(2006)이 번안한 YSQ-단축판 질문지(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 YSQ-Short Form)로, 이 질문지는 Young, Klosko와 Weishaar (2003/2005)가 16개의 초기부적용 도식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한 YSQ 완전형(YSQ-L2)의 205문항을 이미엘(2006)이 타당화한 것이다. YSQ-단축판 질문지는 15개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결핍, 유기, 불신/학대, 사회적 고립, 결함/수치심, 실패, 의존/무능감, 위험/질병에 대한 취약성, 융합 부족, 자기희생, 정서적 억제, 엄격한 기준, 특권의식, 부족한 자기통제', 총 75개의 문항을 6점 척도 상에서 평정되도록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5개 하위요인 중 5개 도식(정서적 결핍, 사회적 고립, 결함/수치심, 실패, 특권의식)의 총 2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응답자의 반응 피로도를 고려했을 때 전체 문항을 사용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이 5개 도식은 여러 문헌(예: Emmons, 1984; Kernberg, 1975; Pincus et al., 2009; Ronningstam, 2009;

Zeigler-Hill et al., 2011 등)에서 기술하고 있는 자기애성 성격의 임상적 특징과 직접 관련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각 하위요인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 범위는 이미열(2006)의 연구에서는 .63~.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0~.94이었다.

#### 한국판 방어유형 질문지(Korean Defense Style Questionnaire: K-DSQ)

이 질문지는 개인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어기제를 측정하기 위해 Bond, Gardner, Christian, 및 Siga(1983)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인 Defense Style Questionnaire를 조성호(1999)가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으로서 16개의 방어기제를 측정하는 65개 문항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성호(1999)의 연구를 참고하여 적응적 방어유형(유머, 전능, 승화, 부정)에 해당하는 문항과, 부적응적 방어유형 중 미성숙한 방어유형(행동화, 투사, 분리, 공상, 수동공격, 소비)에 해당하는 문항 중,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항을 제외하고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조성호(1999)가 보고한 각 요인별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는 .64~.82이었고 본 연구에서 확인한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 범위는 .50~.78이었다.

####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Korean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 KIAS-40)

이 척도는 Wiggins(1994)의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IAS-R)를 모델로 하여 정남운(2004)이 개발한 것으로, 단일 형용사로 된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KIAS-40은 대인관계 원형 모델 8분면에 해당하는 자기 확신/ 자기주장(PA), 비판/ 통제(BC), 냉담함/ 배타성(DE), 회피/고립(FG),

비주장/ 소심(HI), 순응/ 양보(JK), 온화/ 친절(LM), 사교성/ 쾌활(NO)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항을 제외한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정남운(2004)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는 .79~.90이었고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는 .53~.80이었다.

#### 간이 정신진단 검사(Brief Symptoms Inventory-18: BSI-18)

이 질문지는 SCL-90-R의 단축형(단축형 간이 정신진단 검사)를 박기쁨, 이상우와 장문선(2012)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것이다. BSI-18은 기존 SCL-90-R의 9가지 증상 차원 척도 중 3가지 하위척도(신체화, 우울, 불안)를 사용한 것으로 하위척도마다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기쁨 등(2012)은 하위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를 .71-.80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우울과 불안에 해당하는 12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는 각각 .88, .86이었다.

####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두 가지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 연구문제 1의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병리적 자기에 하위유형 구분을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 분석, 군집분석, 및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병리적 자기에 질문지의 응대성, 취약성 두 측정치와 레퍼토리 그리드 분화, 통합 측정치들의 관계 양상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자기에 집단이 인지내용과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하위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웅대성, 취약성, 분화, 및 분화 측정치를 종속 변인으로 투입하여 2단계 군집분석(Hair & Black, 2000)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된 하위유형별 병리적 자기애 하위요인별 점수, 초기부적응 도식, 방어유형,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 특성에서의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의 자료 분석 절차는 레퍼토리 그리드 분석 결과 산출된 중심 구성개념의 intensity 평균값, CTR 측정치, 인접도 측정치를 SPSS 21.0에 다시 코딩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 결 과

#### 인지내용 및 인지구조 측정치의 관계성 분석 결과

자기애 집단의 인지내용 측정치인 웅대성 및 취약성과 인지구조 측정치인 분화 및 통합의 분포 양상 및 상호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량과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2에서 웅대성, 취약성, 분화, 통합 네 측정치들의 이변량 상관분석 결과, 웅대성은 취약

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분화와 통합 또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28, p<.01$ ;  $r=-.39, p<.01$ ). 자기애의 인지 내용 측면과 인지 구조 측면의 관계성을 확인한 결과 웅대성은 통합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r=.35, p<.01$ ), 분화와는 부적의 관계 방향을 가리키고는 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r=-.15, p=.16$ ). 또 취약성은 분화, 통합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 웅대성, 취약성, 분화, 및 통합 측정치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먼저 군집분석을 위해 웅대성, 취약성, 통합, 분화 4개 측정치에 대한 표준점수를 투입하였고, 이 표준점수로 위계적 군집분석(Wards method, Squared Euclidean distance)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 계수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2-4개의 모두 의미 있는 파형이 나타났다. 군집수를 단계별로 투입하여 최종 군집 중심점, 군집 프로파일 및 군집별 웅대성, 취약성, 분화, 통합 측정치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군집 수를 4개로 지정하는 것이 각 군집

표 2. 웅대성, 취약성, 분화, 및 통합의 이변량 상관분석 결과 및 기술통계량(N=95)

	웅대성	취약성	분화	통합
웅대성	-			
취약성	-.28*	-		
분화	-.14	-.05	-	
통합	.34*	-.17	-.39*	-
평균(M)	3.07	3.14	51.98	0.28
표준편차(SD)	0.59	0.54	17.21	0.10

\* $p<.01$

의 차별적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 분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집 1은 웅대성은 중간 정도이고 취약성은 낮고 분화는 높으며 통합은 낮은 형태의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군집 2는 웅대성이 높고 취약성과 분화는 낮고 통합은 높은 형태의 집단을, 군집 3은 웅대성은 낮고 취약성은 높고 분화와 통합이 모두 중간 정도인 형태의 집단을 이루었다. 군집 4는 웅대성과 취약성이 모두 높고 분화는 중간정도에 통합이 높은 형태의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각 군집의 명칭은 황선정과 조성호(2015b)의 연구를 따라 분화형(35, 36.8%), 웅대통합형(12, 12.6%),

취약형(28, 29.5%), 및 취약웅대형(20, 21.1%)으로 명명하였다(표 3, 그림 4).

하위유형별 심리 정서적 특성들에서의 일원 변량분석 결과

최종 분류된 4개의 집단이 심리 정서적 특성에서도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병리적 자기에 총점 및 하위요인, 초기부적응 도식, 방어유형,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 측정치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그 결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표 3. 자기애의 최종 군집별 중심점(N=95)

	군집 1 분화형	군집 2 웅대통합형	군집 3 취약형	군집 4 취약웅대형
웅대성	0.07	0.73	-1.05	0.90
취약성	-0.64	-1.15	1.49	0.85
분화	0.71	-1.14	-0.30	-0.15
통합	-0.54	1.70	-0.39	0.27
군집크기	35	12	28	20

주. 각 점수는 표준화된 점수임:  $M=0$ .  $SD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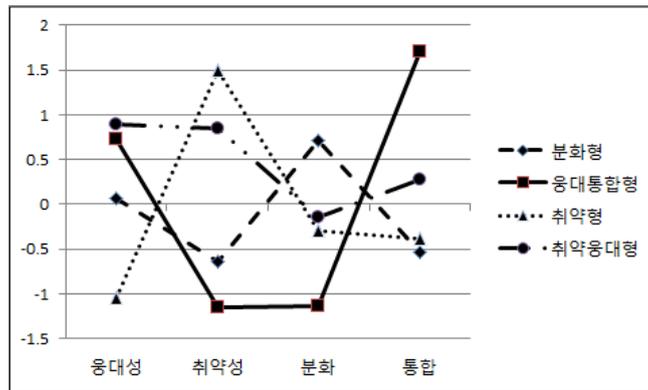


그림 4. 병리적 자기애의 군집 프로파일

표 4. 자기애 하위유형별 자기애 총점 및 하위요인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자기애 총점 및 하위요인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_{값}$ (3, 91)	Scheffe's	
	분화형 (n=35)	웅대통합형 (n=12)	취약형 (n=28)	취약웅대형 (n=20)			
PNI 총점	3.02(0.19)	3.06(0.24)	3.13(0.29)	3.68(0.24)	33.69*	1,2,3<4	
웅대성 총점	3.10(0.38)	3.51(0.47)	2.46(0.42)	3.60(0.32)	39.41*	3<1<2,4	
취약성 총점	2.81(0.32)	2.56(0.40)	3.50(0.39)	3.55(0.36)	37.90*	1,2<3,4	
웅 대 성	웅대환상	3.82(0.58)	4.05(0.68)	3.11(0.77)	4.21(0.47)	13.85*	3 < 1,2,4
	착취	2.60(0.87)	2.97(0.66)	1.64(0.75)	3.06(0.49)	17.81*	3 < 1,2,4
	자기희생 자기고양	2.87(0.65)	3.52(0.66)	2.63(0.79)	3.53(0.65)	8.93*	3 < 2, 4 1 < 4
취 약 성	수반적 자존감	2.99(0.42)	2.88(0.54)	3.65(0.41)	3.87(0.42)	26.22*	1,2<3,4
	평가절하	2.50(0.79)	1.78(0.65)	3.27(0.75)	3.15(0.94)	12.55*	1,2<3,4
	특권분노	2.93(0.57)	3.01(0.43)	3.58(0.54)	3.65(0.67)	10.57*	1,2<3,4

N=95, \* $p < .001$

나타났다( $p < .001$ ). 구체적 비교를 위해 사후검증을 한 결과, 자기애 총점은 취약웅대형이 가장 높았고, 웅대성은 웅대통합형과 취약웅대형이 동일한 수준에서 가장 높았으며 취약형이 가장 낮았다. 취약성은 취약형과 취약웅대형이 분화형 및 웅대통합형보다 높았다. 웅대성 하위요인 중 웅대환상 및 착취는 세 집단 모두 취약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자기희생 자기고양에 있어서는 분화형 또한 취약웅대형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취약성 하위요인 모두 취약형 및 취약웅대형이 분화형 및 웅대통합형보다 높았다. 이 결과로 보면 취약웅대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병리적 자기애 성향을 갖고 있으며 이 유형의 웅대성은 웅대통합형만큼, 취약성은 취약형만큼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분화형은 가장 낮은

수준의 병리적 자기애 성향을 갖고 있으며 이 유형의 웅대성은 중간 수준이고 취약성은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하위유형별 초기부적응 도식 및 방어유형에서의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표 5). 초기부적응 도식에서는 특권의식 도식을 제외한( $F(3, 91)=1.25, p=.295$ ), 정서적 결핍, 사회적 고립 및 결함/수치심 모두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사후검증 결과, 정서적 결핍, 사회적 고립, 결함/수치심 모두 취약형이 분화형 및 웅대통합형보다 높았다. 특히 사회적 고립 및 결함/수치심 경우 취약웅대형이 웅대통합형 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실패는 분화형 및 취약형이 웅대통합형보다 높았고, 취약형이 취약웅대형보다 높았다. 이 결과로 보면, 취약형은 취약웅

표 5. 자기에 하위유형별 초기부적응 도식 및 방어유형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구분	하위요인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_{값}$ (3, 91)	Scheffe's
		분화형 (n=35)	응대통합형 (n=12)	취약형 (n=28)	취약응대형 (n=20)		
초기부적응도식	정서적결핍	11.68(5.89)	7.91(3.80)	17.10(7.21)	12.55(5.94)	7.51**	2,1<3
	사회적고립	13.97(6.41)	9.16(4.74)	19.71(6.66)	16.00(7.00)	8.55**	2,1<3 2<4
	결함/수치심	13.80(6.04)	8.66(4.63)	18.57(6.40)	15.60(7.19)	7.61**	2,1<3 2<4
	실패	15.17(7.10)	8.25(3.36)	19.28(7.26)	11.95(5.16)	10.02**	2<1,3 4<3
방어유형	특권의식	14.48(4.21)	14.16(2.97)	16.28(3.55)	15.10(5.02)	1.25	n.s
	수동공격	9.94(2.41)	9.50(2.43)	9.57(2.74)	9.00(2.31)	0.61	n.s
	승화	8.02(2.75)	7.16(2.16)	7.35(3.31)	7.25(3.12)	0.48	n.s
	행동화	8.02(2.28)	7.75(2.70)	7.14(2.96)	8.50(3.15)	1.05	n.s
	유머	7.88(3.27)	8.91(1.88)	6.35(2.80)	7.85(3.21)	2.53	n.s
	투사	4.68(1.64)	4.33(1.55)	6.03(2.34)	5.90(2.65)	3.54*	n.s
	부정	6.05(2.01)	5.75(2.05)	5.21(1.91)	5.75(2.98)	0.74	n.s
	전능	7.00(2.68)	8.58(2.10)	4.32(2.14)	5.95(2.78)	10.32**	3<1,2 4<2
	공상	9.00(2.73)	7.83(2.66)	8.89(2.79)	9.70(3.57)	1.02	n.s
	분리	5.05(2.24)	4.58(2.10)	5.85(3.47)	5.65(2.85)	0.83	n.s
	소비	7.14(3.08)	7.41(3.50)	6.82(2.46)	8.00(3.24)	0.63	n.s

N=95, \* $p<.05$ , \*\* $p<.001$

대형과, 분화형은 응대통합형과 비슷한 수준에서 초기부적응 도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방어유형에서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전능과 투사만이 유형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3, 91)=10.32, p<.001$ ;  $F(3, 91)=3.54, p<.05$ ). 사후 검증 결과 전능에서 분화형과 응대통합형이 취약형보다 높았고, 취약응대형보다 응대통합형이 더 높았다. 즉 분

화형과 응대통합형은 전능, 취약형은 투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약응대형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방어유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하위유형별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표 6). 먼저 우울과 불안 모두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울은 분화형, 취약형, 취약응대형이 응대통합형보다

표 6. 자기애 하위유형별 정서(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구분	하위요인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값 (3, 91)	Scheffe's
		분화형 (n=35)	옹대통합형 (n=12)	취약형 (n=28)	취약옹대형 (n=20)		
정서	우울	12.11(4.56)	5.58(5.07)	13.10(6.27)	13.85(6.97)	6.08**	2 < 1, 3, 4
	불안	8.49(5.12)	5.33(4.51)	9.82(5.74)	11.15(7.63)	2.75 <sup>†</sup>	n.s
대인관계	자기확신/ 자기주장	10.71(3.39)	13.33(1.77)	7.67(2.61)	11.15(2.75)	12.99***	3 < 1,2,4
	비판/통제	10.14(2.82)	10.58(2.57)	10.82(2.13)	11.80(2.76)	1.76	n.s
	냉담/배타성	8.83(3.38)	7.25(3.30)	9.96(2.99)	10.05(3.61)	2.46	n.s
	회피/고립	9.09(3.28)	5.66(1.92)	11.25(2.95)	11.10(3.66)	10.65***	2 < 1,4,3
	비주장/소심	8.97(3.28)	7.50(1.67)	10.75(2.92)	8.40(2.30)	4.84**	2 < 3
	순응/양보	9.52(2.90)	10.75(2.05)	10.25(3.19)	9.20(2.96)	0.97	n.s
	온화/친절	11.46(2.64)	13.83(1.46)	10.78(3.27)	12.40(2.87)	3.85 <sup>†</sup>	3 < 2
	사교성/쾌활	10.86(2.94)	13.91(1.62)	8.32(3.28)	11.00(2.80)	11.19***	3 < 1 < 2 3 < 4

N=95, <sup>†</sup>p<.05, \*\*p<.01, \*\*\*p<.001

높았다. 불안은 사후검증 결과 다른 집단으로 구분되지 않았으나 평균으로 비교해보면 취약옹대형이 가장 높았고 옹대통합형이 가장 낮았다. 대인관계에서는 자기 확신/자기주장, 회피/고립, 비주장/소심, 온화/친절, 사교성/쾌활에서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옹대통합형은 분화형, 취약형, 취약옹대형에 비해 자기확신/자기주장이 가장 높았고, 또 취약성에 비해 온화친절이 더 높았으며, 취약형, 분화형에 비해서 사교성/쾌활도 가장 높았다. 그리고 취약옹대형은 취약형에 비해 사교성/쾌활이 더 높게 나타났고, 취약형은 회피/고립, 비주장/소심에 있어 다른 유형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중심 구성개념 평정 결과 및 인지 위계 측정치 분석 결과

앞에서 분류된 병리적 자기애 하위유형별 인지위계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레퍼토리 그리드로 도출된 중심 구성개념들을 옹대성 혹은 취약성으로 평정하였다. 두 평정자들의 평정자간 일치율은  $k=.78$ 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호한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체 구성개념, 중심 구성개념, 일치된 중심 구성개념 중 옹대성 중심 구성개념, 및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의 빈도와 비율을 표 7에 제시하였다. 전체 구성개념의 수는 개인당 도출되는 24개의 구성개념에 사례수 95를 곱한 값이다. 전체 구성개념 중 중심 구성개념의 빈도는 전체

의 37.1%에 해당하고 그 중 두 평정자에 의해 일치된 구성개념은 전체 중심 구성개념의 78.0%에 해당하였다. 이들 중심 구성개념을 웅대성(G)과 취약성(V)이 각각 47.1%, 51.2%를 차지하였고 기타(ns)는 1.7%로 나타났다.

인지 위계 특성은 웅대성,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의 강도(intensity) 측정치, 기여도 측정치(CTR), 인접도 측정치 등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세 측정치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자기에 네 하위유형별 차이를 검증하고자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웅대성 및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의 강도에 대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웅대성 및 취약성 intensity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3, 269)=6.47, p<.001$ ;  $F(3, 269)=16.41,$

$p<.001$ ). 사후검증 결과, 웅대성 중심 구성개념의 강도는 취약형이 분화형 및 취약웅대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의 강도는 웅대통합형 및 취약형이 분화형 및 취약웅대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평균 값으로 볼 때에도 웅대통합형의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의 강도는 취약형 만큼 높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웅대성 및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의 기여도 측정치에 대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웅대성 중심 구성개념 기여도와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 기여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3, 288)=3.46, p<.05$ ;  $F(3, 288)=6.13, p<.05$ ). 사후검증 결과 웅대성 중심 구성개념 기여도는 취약형이 취약웅대형보다 높았고,

표 7. 평정된 중심 구성개념별 빈도 및 비율

항 목	빈도	비율(%)
전체구성개념	2,280	100
중심 구성개념의 수	846	37.1
일치된 중심 구성개념	660	78.0
웅대성 중심 구성개념(G)	311	47.1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V)	338	51.2
기타 중심 구성개념(ns)	11	1.7

표 8. 자기에 하위유형별 웅대성 및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 강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중심 구성개념의 강도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 값 (3, 269)	Scheffe's
	분화형 (n=33)	웅대통합형 (n=12)	취약형 (n=28)	취약웅대형 (n=20)		
웅대성(G)	0.30(0.11)	0.34(0.13)	0.37(0.14)	0.30(0.13)	6.47*	1,4<3
취약성(V)	0.27(0.09)	0.37(0.17)	0.40(0.15)	0.29(0.09)	16.41*	1,4<2,3

\* $p<.001$  G: 웅대성 중심 구성개념, V: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

표 9. 자기애 하위유형별 웅대성 및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 기여도 일원변량분석 결과

중심 구성개념의 기여도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 값 (3, 288)	Scheffe's
	분화형 (n=33)	웅대통합형 (n=12)	취약형 (n=28)	취약웅대형 (n=20)		
웅대성(G)	64.08(22.65)	63.98(24.80)	70.29(19.90)	56.75(26.97)	3.46*	4<3
취약성(V)	61.44(24.47)	64.15(23.51)	75.57(17.38)	66.23(18.69)	6.13*	1<3

\* $p < .05$

표 10. 자기애 하위유형별 웅대성 및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 인접도 일원변량분석 결과

중심 구성개념의 인접도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 값 (3, 63)
	분화형 (n=33)	웅대통합형 (n=12)	취약형 (n=28)	취약웅대형 (n=20)	
웅대성(G)	0.25(0.31)	0.31(0.31)	0.23(0.30)	0.31(0.26)	0.33
취약성(V)	2.76(1.52)	6.17(4.21)	3.71(3.72)	2.40(1.90)	2.60

취약성 중심구성개념 기여도 또한 취약형이 분화형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9). 평균값으로 볼 때에도 웅대성 중심 구성개념의 기여도는 취약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접거리 이내(0.20)의 웅대성 중심 구성개념 간 연결 빈도(인접도) 및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 간 연결 빈도에 대한 하위유형별 차이를 검증하고자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인접거리 이내의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 간 연결 빈도에 대해서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경미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F(3, 63)=2.60, p=.067$ ). 즉, 웅대 통합형의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 간 연결 빈도의 평균이 다른 집단 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레퍼토리 그리드를 적용하여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중심 구성개념의 웅대성 및 취약성 인지위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먼저 웅대성, 취약성과 같은 인지 내용 지표와 분화, 통합과 같은 인지 구조 지표를 조합하면 서로 다른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으로 구분되는지 군집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군집분석 결과 병리적 자기애 집단은 4개의 군집-분화형, 웅대통합형, 취약형, 취약웅대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군집(병리적 자기애 하위유형)들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권의식을 제외한 병리적 자기애 하위요인, 초기부적응 도식, 우울, 불안 등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일부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권의식에서 유형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Zeigler-Hill 등(2011)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특권의식 도식은 자기에 하위유형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이기 때문에(강선희, 2002; 이인숙, 2002; Miller & Campbell, 2008)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또 전능, 투사를 제외한 방어유형에서, 그리고 비판/통제, 냉담/배타성, 순응/양보 등의 대인관계에서 유형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이 결과가 자기에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다. 황선정과 조성호(2015a)의 연구에서 병리적 자기에 집단을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병리적 자기에 고집단과 저집단으로만 구분하여 동일한 척도들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하위요인들 대부분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예: 수동공격, 승화, 행동화, 부정, 공상, 분리, 유머, 비판/통제, 냉담/배타성 등). 즉, 병리적 자기에를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에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에서 위 요인들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하위유형으로 구분했을 때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세분화된 자기에 유형으로 구분되었을 때 더 민감하게 측정되는 방어유형과 대인관계 하위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황선정과 조성호(2015a)의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전능 방어는 본 연구에서 웅대통합형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예: 강연우, 2004)에서 전능이 외현적 자기에의 주된 방어유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병리적 자기에 집단-비자기에 집단, 하

위유형별 집단 등을 심층 비교함으로써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 일 수 있다.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다른 척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방어유형 중 승화는 .50, 대인관계 중 순응/양보는 .53 정도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연구자가 응답자의 반응 피로도를 낮추고자 하는 의도로 문항 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일 수 있다. 각 척도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요인 부하량이 높은 문항을 중심으로 선별하긴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결과적으로 다른 척도들에 비해 하위요인별 문항 수가 현저히 적어짐으로써 신뢰도를 떨어뜨렸을 수 있다. 추후에는 예비 연구를 통해 선별할 문항에 대해 요인 부하량을 사전 검토하거나 사례수를 늘림으로써 척도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하위유형들의 임상적 실체를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분화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병리적 자기에 총점이 가장 낮으면서 취약성보다 웅대성(예: 웅대환상, 착취)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화형은 실패 도식과 전능 방어를 경미하게 높게 지닌다는 것 외에는 두드러지는 심리 정서적 특징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웅대통합형은 병리적 자기에 총점에서는 분화형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웅대성은 높으면서 취약성은 현저히 낮다는 것이 분화형과 다른 점이었다. 이들은 초기부적응 도식, 우울, 불안 등 부정적 특성은 뚜렷하게 낮고 긍정적 대인관계 양상이나 성숙한 방어에 해당하는 특성은 뚜렷하게 높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취약형은 병리적 자기에 총점에서는 앞선 두 유형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웅대성은 현저히 낮

고 취약성은 현저히 높다는 것이 차별적 특징이었다. 이들은 초기부적응 도식, 우울, 부정적 대인관계 특성 등 부정적 측면은 뚜렷하게 높지만 적응적 대인관계 양상 등 긍정적 특징은 뚜렷하게 낮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마지막으로 취약옹대형은 병리적 자기애 총점이 가장 높으면서 옹대성과 취약성 점수도 동시에 높게 나타났다.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도 초기 부적응 도식, 우울, 불안, 회피/고립 등 부정적 대인관계 특성과 자기확신/자기주장, 사교성/쾌활 등 긍정적 특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등 양가성이 이 유형의 주된 특징이었다. 이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4개의 하위 유형은 각기 다른 임상적 실체를 지닌 독립적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옹대성, 취약성, 분화, 및 통합 등 인지내용과 인지구조를 조합하면 서로 다른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으로 구분될 것이라는 연구문제 1과 연구 가설들은 지지되었다.

각 유형들의 임상적 실체가 각기 독립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은 이들 유형의 인지구조와 관련 있어 보인다. 분화형은 분화가 높고 통합이 낮은 인지구조였고, 옹대통합형은 통합이 높고 분화가 낮은 구조였으며, 취약형은 분화와 통합 모두 중간 수준이었고, 취약옹대형은 통합이 높고 분화가 중간 수준의 인지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인지구조가 어떤 형태를 띠느냐에 따라 그 유형의 임상적 실체는 달라질 수 있음을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화와 통합의 정의에 근거하여 각 하위 유형의 임상적 특징을 설명해보면, 분화형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구성개념의 수가 많으면서 동시에 특정 구성개념을 선취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는 낮은 인지구조를 지녔다. 분화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심리정서적 특징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에 대해 명료하게 조직화하기보다는 너무 다양한 구성 작용으로 인해 제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기 때문일 수 있다. 옹대통합형은 특정 구성개념을 선취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는 높으면서 다양한 구성개념을 사용하는 정도는 낮은 인지구조를 지녔다. 이들이 자신을 심리적 불편감이 낮고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자신의 옹대한 측면에 대한 자극만을 특정하게 조직화하는 통합 구조가 높는데 반해, 그 옹대한 측면이 지니는 다른 가능성을 다양하게 분화시켜 보는 구조는 약하기 때문일 수 있다. 취약형은 특정 구성개념을 선취배타적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다양한 구성개념을 사용하지도 않는 인지구조를 지녔다. 다만 분화형에 비해서는 분화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에, 이들에 비해서는 자신의 심리적 불편감에 대해 더 명료하게 자각하면서도, 동시에 옹대통합형에 비해서는 통합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옹대성을 중심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 결과 취약형은 자신의 옹대함 보다는 취약함에 대해 더 많이 보고한다고 할 수 있다. 취약옹대형은 선취배타적 구성의 정도는 높는데 다양한 구성개념을 사용하는 정도는 중간 수준의 인지구조를 지녔다. 즉 통합이 높은 옹대형의 특성과 분화가 중간인 취약형의 특성을 모두 지닌 형태로서 이들은 옹대성을 조직화하는데 능숙하면서도 옹대형에 비해 분화가 확실히 낮지는 않기 때문에 취약함이 자극될 때 이것에 쉽게 동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병리적 자기애 하위유형의 임상적 실체는 옹대성, 취약성과 같은 인지내용과 분화, 통합과 같은 인지구조를 동시에 고려할

때 더 분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Millon 등(2004)의 언급대로 성격의 구조와 내용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즉, 구조가 내용을 담아내고 그 내용이 특질을 형성하여 구조에 다시 영향을 미침으로써 하나의 성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마치 그릇에 어떤 내용물이 담기는가에 따라 그 그릇의 용도와 명칭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 따라서 성격 연구에서는 구조지표와 내용지표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각 하위유형별 중심 구성개념들의 인지 위계를 알아보았다. 웅대성, 취약성으로 평정된 중심 구성개념들의 위계 측정치, 즉 강도, 기여도, 및 인접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접도를 제외한 강도와 기여도에서 하위유형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각 하위유형들의 웅대성 중심 구성개념 및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은 중심 구성개념의 강도, 기여도, 인접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연구 문제 2와 연구 가설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하위유형별 유의미한 차이가 인접도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는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인접도의 개념이 강도 및 기여도에 비해 경험적으로는 입증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강도와 기여도는 각각 상관분석, 주성분분석 등의 명확한 분석 논리에 근거해서 GRIDCOR 채점 결과에서 직접 산출되는 것인데 반해, 인접도는 대응분석 상에서 산출된 거리값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다시 한 번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한 측정치이다(예: 웅대성 향끼리, 혹은 취약성 향끼리 조합하여 이들 간 거리값을 다시 구한 것). 이 측정치는 개념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경험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을 수 있다. 둘째는 레퍼토리 그리드에서 산출되는 '거리값' 측정치 자체가 지나는 모호함 때문에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 레퍼토리 그리드 매뉴얼에서는 거리값이 구성개념들간 관계성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상관값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상관값처럼 유인가(+ 혹은 -)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관계성의 방향까지 알기는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Fransella et al., 2004). 따라서 인접도에서와 같이 단지 구성개념간 거리로만으로 관계성의 영향력을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의에서 주안점으로 삼을 것은 웅대통합형과 취약형의 인지위계 특성이다. 4유형 중에서 특히 이 두 유형에 주안점을 두는 이유는 일원변량 분석 사후 검증 결과 주로 웅대통합형과 취약형의 인지위계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직접 관련되는 유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본 연구는 웅대성이 높은 유형의 취약성 존재 여부, 취약성이 높은 유형의 웅대성 존재 여부를 밝히고자 하는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일원변량 분석 결과, 웅대성 중심 구성개념에 있어서는 취약형이 다른 유형(분화형, 취약 웅대형)에 비해 강도와 기여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에 있어서는 취약형과 함께 웅대통합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강도와 기여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평균의 크기로 볼 때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의 인접도에 있어서도 웅대통합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웅대통합형은 취약형 만큼이나 취약성이 높다는 점, 또 취약형은 취약성이 높을 뿐 아니라 동시에 웅대성도 함께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연구 문제 1에서 병리적 자기애 하위요인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웅대통합형에서 웅대성 점수만 높게 나타났던 것, 또 취약형에서 취약성 점수만 높게 나타났던 것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즉 웅대통합형이 자기보고로는 웅대성이 높아서 병리적 성격과 관련된 초기부적응 도식은 거의 없고 정서적으로 우울, 불안하지 않으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자기 확신이 높고 온화/친절하며 사교성이 높은 것으로 스스로를 기술하고 있지만, 제 3자의 구성개념 평정 결과로 보면 웅대성 만큼이나 취약성 구성개념으로 자기를 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취약형이 자기보고에서는 수반적 자존감, 평가절하, 특권분노 등과 같은 모든 취약성 하위요인, 정서적 결핍, 사회적 고립, 결함/수치심 등과 같은 대부분의 초기부적응 도식이 높고, 우울한 정서와 회피/고립, 비주장/소심 등 철회적 대인관계 또한 높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구성개념 평정 결과로 보면 취약형의 실제 구성개념에는 취약성도 존재하지만 상당 수준의 웅대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기애의 자기보고와 관찰자간 평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Ramsey, Watson, Biderman, & Reeves, 1996)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웅대통합형의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이 유의미하게 도출된 것은 Akhtar와 Thomson(1982), Kernberg(1975/2008), Morf와 Rhodewalt(2001) 등 많은 임상가들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웅대함 이면의 취약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본 연구가 경험적으로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웅대성이 우세한 자기애 성향자들이 지닌 실제 구성개념은 취약하다는 것을 레퍼토리 그리드를 통해 밝힌 또 다른 연구가 있

다. Dimaggio 등(2008)은 세 명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에 대한 치료 회기 축어록을 '문제적 상태에 대한 그리드(GPS: Grid of Problematic States)'라는 기법으로 내용분석 하였다. 이 기법은 축어록 대화에서 드러나는 내적 경험들을 일종의 구성개념으로 간주하고, 평정자들이 사고, 정서, 및 신체적 감각 영역으로 나누어 그것을 평정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들은 분노, 거부/배제/분리, 손상감, 불신, 슬픔, 우울, 및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이고 취약한 구성개념을 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분석에 사용된 사례들이 DSM-IV에 의해 진단된 외현적 자기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환자의 내적 구성개념은 '웅대한' 것이 아니라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자기애성 성격에 대한 임상적 관찰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웅대통합형의 중심 구성개념의 취약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Dimaggio 등(2008)의 연구를 반복 검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취약형의 중심 구성개념에는 취약성만큼이나 웅대성 또한 우세하다는 본 연구 결과는 취약성이 우세한 내현적 자기애 안에도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과 같은 웅대성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고 한 강선희(2002)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취약형에 내재되어 있는 웅대성에 주목한 경험적 연구는 현재까지 부재하다. 한수정과 권석만(2010)은 외현적 자기애 및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관련 인지에 대한 민감성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애의 부정적 정보 민감성에 대해서는 입증은 하였으나, 내현적 자기애의 긍정적 정보에 대한 민감성은 알려진 바가 없다고 논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심 구성개념의

웅대성 및 취약성 위계에 접근함으로써, 취약성이 우세한 자기에 성향자의 내적 세계에 웅대성도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임상적 관찰 내용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그렇다면 웅대통합형 및 취약형의 자기보고 내용이 실제 구성개념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내용은 실제 구성개념에 대한 방어'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자기에 설문지에 마킹할 때 '자신을 웅대하다고, 혹은 취약하다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미 자기에적 욕구가 이들에게 자극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런 자극들은 자기에 성향자 내부에 있는 구성시스템을 가동시킬 것이고 그 구성개념들은 자극에 대한 반응 양식을 촉진시킬 것이다. 즉 자기에 성향자 내부에 있는 취약성을 방어하거나 혹은 웅대성에 대한 민감성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자기보고 질문지에 대한 반응이 도출될 것이다(황선정, 2014). Kernberg(1975/2008)와 Kohut(1977)이 자기에를 특징짓는 가장 큰 방어기제가 분열(splitting)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과정에서 작동되는 방어는 분열 기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웅대통합형과 취약형은 서로 다른 내용으로 웅대성과 취약성을 보고하는가? 즉, 웅대통합형은 왜 취약성 구성개념이 두드러지고, 취약형은 왜 취약성과 웅대성 모두 두드러지는가? 이는 분열 방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자기에성 성격의 유형에 따라 분열 방어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한 연구자들이 있다(예: Pincus & Lukowitsky, 2010; Taylor, Morley, & Barton, 2007). Pincus와 Lukowitsky(2010)과 Taylor 등(2007)은 자기에는 자신의 웅대성과 취약성을 드러내는데 있어 두 가지 형

태의 분열을 지니는데, 이를 Kohut(1971)의 수평분열(horizontal splitting)과 수직분열(peripheral splitting)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수평분열은 자신이 수용하기 어려운 자기대상적 욕구를 의식으로부터 제외시켜 억압하는 것이다. 그 결과 자기에는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에 대한 느낌을 만성적으로 부인하면서 웅대성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수직분열은 자신의 취약성과 무력감(helplessness)을 전능감으로 대체시키려는 의식적인 경험을 하면서도 이를 부인하는 것이다. 즉 전능감과 취약성을 동시에 경험하지만 이를 부인하게 되며, 부인의 결과로 남게 되는 것은 텅 빈 느낌, 낮은 자존감, 만성적 수치심 등이다(Taylor et al., 2007). Pincus와 Lukowitsky(2010)에 의하면 수평분열은 웅대성이 우세한 자기에에서 주로 나타나는 방어양식이고, 수직분열은 취약성이 우세한 자기에에서 주로 나타나는 방어양식이다. 이를 본 연구에 적용시키면 웅대통합형은 수평분열 방어를, 취약형은 수직분열 방어를 주로 사용할 것으로 이해된다. 레퍼토리 그리드를 통해 웅대통합형은 웅대성 중심 구성개념도 존재하지만 취약형 만큼이나 큰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 강도가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평분열 방어 덕분에 자신의 취약함은 의식 밑으로 억압되고 웅대함만이 의식화되어 자신을 실제로 웅대한 사람으로 지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에적 자극을 만나면 취약성 구성개념들이 강력한 강도와 기여도로 작동되어 자신의 웅대성을 더 적극적으로 조직화하면서 자신을 전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고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취약형은 취약성 중심 구성개념도 존재하지만 네 유형 중 가장 큰 웅대성 중심 구성개념 기여도를 지니는 것

으로 레퍼토리 그리드를 통해 확인되었다. Pincus와 Lukowitsky(2010)의 제안에 의하면 이들은 주로 수직분열 방어를 사용할 것인데, 의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자신의 웅대성과 취약성을 모두 지각하게 된다. 완벽한 웅대성이란 현실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적 상태이기 때문에, 취약형이 자신의 웅대함과 취약함을 동시에 지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웅대한 자기에 완벽히 미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더욱 수치스러운 감정이 경험될 것이다(Morrison, 1989). 이들은 자신에 대해 비판적이고 피과학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수치심으로 인한 불안을 통제할 수 있고(Cooper & Ronningstam, 1992), 취약성을 두드러지게 표방함으로써 외부의 비판을 원천 봉쇄하여 자신의 웅대성을 보호할 수 있다. Hepper, Gramzow와 Sedikides(2010)는 이런 방식의 자기애적 고양을 자기-보호적 고양(self-protective enhancement)이라 일컬었다. 수평분열과 수직분열 개념은 원래 Kohut(1977)이 한 개인 내에서 일어나는 분열로 개념화한 것이지만, 자기애의 유형에 따라서도 분열 방어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Pincus와 Lukowitsky(2010), Taylor 등(2007)의 주장에 대해서 본 연구는 그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의 의의는 두 가지이다. 첫째, 자기조직화 기제가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을 구분하는 근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Pincus와 Lukowitsky 등(2010)은 기존의 자기애 연구들에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명칭을 부여하는 방식이 무려 50 개가 넘는다는 Cain, Pincus와 Ansell(2008)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유형 분류의 기준을 지나치게 외적인 행동, 태도, 정서 등의 특징에 의거한 점

을 비판하였다. 외적 발현 양상만으로 자기애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자기애의 진정한 속성을 규명하는데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성주의 자기조직화라는 근본적이고 내적 기준으로 병리적 자기애의 유형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 기준은 기존 연구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개념화했던 여러 자기애 하위 유형들을 하나의 연속적 스펙트럼 상에 위치시키는 통합적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황선정과 조성호, 2015b). 인지구조 측면을 하위유형 분류에 사용하였다는 점은 자기애 하위유형을 구분하던 기존의 방식, 즉 외현적 자기애-내현적 자기애(Wink, 1991)과 비교했을 때도 차별점을 지닌다. 물론 기존의 2유형(외현적, 내현적 자기애)과의 공통점도 존재하지만(예: 웅대성이 두드러지는 유형과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 본 연구의 유형에는 웅대성, 취약성과 같은 내용 지표보다는 구조 지표가 더 우세한 유형(분화형)도 존재한다는 점, 즉 구조와 내용의 상대적 비중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또 기존의 2유형에서는 자기애 질문지(Narcissism Personality Inventory: NPI)상의 상위 20% 혹은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외현적 자기애 집단에 할당하고,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tic Scale: CNS) 상의 상위 상위 20% 혹은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내현적 자기애 집단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임의 할당 방식이 아니라 자연발생적 군집에 의해 집단을 도출했다는 점이 다르다. 그 결과 기존의 2유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웅대성과 취약성이 모두 높은 유형(취약웅대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

였다. 아울러 취약용대형과 같이 통합형의 인지 구조와 취약형의 인지 구조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레퍼토리 그리드라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기보고로는 알기 어려운 병리적 자기애의 인지위계 특성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자기애 연구는 상당부분 자기보고에 의한 방법론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자기보고로 드러난 용대성 자기애의 적응적이고 건강한 측면들 혹은 취약성 자기애의 취약하고 과민하기만한 측면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유형별 비교 연구에서는 주로 용대성 자기애가 취약성 자기애보다 더 적응적인 것으로 묘사되거나(예: 하정희, 허보연, 강연우, 송언희, 2009),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추후 연구에 대한 제안점으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다(예: 황성훈, 2010). 본 연구는 레퍼토리 그리드 방법론을 통해 용대통합형의 내적 취약성과 취약형의 내적 용대성의 존재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많은 임상가들이 관찰된 내용으로만 보고했던 특징들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레퍼토리 그리드의 방법론적 가치는 다양한 성격장애의 인지 구조 및 인지 과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더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특히 병리적 자기애와 같이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자기 고양적 편향이 더 심한 성격장애를 연구할 때 더 분명하게 찾을 수 있다. 자기애의 보고 내용이 그들의 전부(entire story)가 아닐 수 있다는 회의감으로 인하여(Zeigler-Hill, Clark, & Pickard, 2008) 이들의 내면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 문제는 자기애 연구에 있어서 꾸준히 쟁점이 되어 왔다(예: Ackerman, Donnellan, & Robins, 2012; Rosenthal & Hooly, 2010 등).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의미 차원을 스

스로 찾아가게 하는데 목적을 두는 레퍼토리 그리드는 병리적 자기애의 연구 방법론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네 가지이다. 첫째, 중심 구성개념의 평정 절차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을 평정할 때 용대성(G), 취약성(V), 기타(ns) 등으로 표기하는 명목 방식의 절차를 따랐는데, 만약 리커트 방식의 절차를 따랐다면 평정된 구성개념들의 양적 크기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평정 시 용대성과 취약성 모두에 속하는 구성개념에 대해서는 평정하지 않았던 점도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권의식으로 가득찬'과 같은 구성개념은 용대성 자기애와 취약성 자기애의 공통요인임에도 불구하고(Miller & Campbell, 2008; Zeigler-Hill et al., 2011), 이를 어느 한쪽 속성으로만 평정하게 했다는 것 또한 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구성개념의 용대성 및 취약성 속성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평정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충분한 검토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레퍼토리 그리드에 의해 도출된 중심 구성개념들의 용대성 및 취약성의 다른 내용적 특징을 분석하지 않은 점도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구성개념에는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질적 정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구성개념 내용평정체계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CSPC(Classification System for Personal Constructs)이다. 이는 Landfield(1971)가 고안하고 Feixas, Geldschläger와 Neimeyer(1992)가 개정한 것으로 구성개념 목록들을 도덕, 정서, 대인관계, 성격, 지적 및 행동영역과 각 영역별 7~9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어 평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구성개념에 내재되어 있

는 방대한 개별 기술적 정보들을 특정한 영역으로 요약함으로써 그 개인의 성격적 정보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는 구성개념의 내용적 특성을 하위유형별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표집과 관련된 것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 남녀 성비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인 점은 본 연구를 일반화할 때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DSM-5(APA, 2013/2015)에서는 남자의 유병율이 50~75%로 여자보다 훨씬 앞서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남녀 참여자의 빈도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자기애의 남녀 성차를 연구할 때는 측정 도구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부가적으로 제안한다. 황선정과 조성호(2015b)는 지금까지 자기애의 남녀 성차를 밝힌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건강한 자기애를 측정한다고 알려진 NPI이고, 이 NPI는 DSM을 근거로 제작된 것이므로 PNI와 같이 병리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남녀 성비를 균등하게 하여 표집을 하고 다양한 자기애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할 필요도 있겠다. 넷째, 통계 분석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원변량분석은 표본의 수가 같고 사례수가 최소 30 이상이 될 것이 권장된다(채구목, 2010).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 수는 30 이하이면서 유형별 사례수 또한 동일하지 않았다. 또한 적은 사례수로 여러 차례 변량분석을 함으로써 제1종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변량분석을 연구 설계로 사용할 때에는 무엇보다 많은 사례수를 표집하여 변량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사례수를 대상으로 본 결과를 반복 검증할 것이 요구된다.

병리적 자기애의 구성작용은 '웅대한 자기'를 통해 자기 감(self sense)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빚어 낸 결과물이다. 이들의 구성이 타인들에게는 기이하고 병리적으로 보일 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 보존을 위한 치열한 유기체적 자기조절 과정일 수 있다. 이들의 구성물과 구성과정을 온전히 이해할 때 치료적 공감은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구성주의적 관점과 방법론이 병리적 자기애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하며 본고를 마친다.

## 참고문헌

- 강선희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연우 (2004). 자기애와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기쁨, 이상우, 장문선 (2012). 대학생 집단을 통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검사-18(BSI-18)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2), 507-521.
- 손정락 (2006). 만성 통증에 대한 구성개념화: 만성 통증 환자들의 구성개념적 대안주의.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3), 437-455.
- 양진원 (2012). 병리적 자기애 성향자의 웅대성과 취약성에 따른 정서적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열 (2006). 청소년기 애착과 우울증과의 관계: 초기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인숙 (2002).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과 대인불안 및 방어성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남운 (2004).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관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의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37-51.
- 조성호 (1999). 한국관 방어유형질문지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115-137.
- 채구목 (2010). 사회과학 통계분석. 서울: 양서원.
- 하정희, 허보연, 강연우, 송언희 (2009).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불안의 매개효과와 독립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3), 683-701.
- 한수정, 권석만 (2010). 자기애자의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지각적 민감성. 한국심리학회: 임상, 29(4), 1135-1143.
- 황선정 (2014). 자기애성 성격의 인지구성: 구성주의 레퍼토리 그리드의 적용.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선정, 조성호 (2015a). 병리적 자기애의 선별 기준에 관한 연구: 병리적 자기애 질문지의 절단점 확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275-303.
- 황선정, 조성호 (2015b).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 유형에 관한 연구: 구성주의 자기 조직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613-640.
- 황성훈 (2010). 자기애성 성격 성향자들의 자기구조 특성: 외현형 및 내현형 자기애의 하위분류에 대한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3), 507-531.
- Ackerman, R. A., Donnellan, B., & Robins, R. (2012).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4*, 141-155.
- Akhtar, S., & Thomson, J. A. (1982).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Psychiatry, 139*, 12-20.
- Alarcón, R. D. & Sarabia, S. (2012). Debates on the narcissism conundrum: Trait, domain, dimension, type, or disorder?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200*, 16-25.
- Alatiq, Y., Crane, C., Williams, J. M. G., & Goodwin, G. M. (2010). Self-organization in Bipolar Disorder: Replication of compartmentalization and self-complexi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4*, 479-486.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 5판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E*]. (권준수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3년에 출판)
- Angelillo, J., Cimboric, P., Doster, J., & Chapman, J. (1985). Ordination and cognitive complexity as related to clinical depression.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3*, 546-553.
- Bannister, D. (1960). Conceptual structure in thought disordered schizophrenics. *Journal of Mental Science, 106*, 1230-1249.
- Beck, A., Freeman, A., & Davis, D. (2008). 성격장애의 인지치료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민병배, 유성진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4에 출판)

- Beck, A. T., Brown, G., Steer, R. A., Eidelson, J. I., & Riskind, J. H. (1987). Differentiating anxiety and depression: A test of cognitive content-specific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 179-183.
- Bieri, J. (1955). Cognitive complexity-simplicity and predictive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1*, 263-268.
- Bond, M., Gardner, S. T., Christian, J., & Sigal, J. J. (1983). Empirical study of self-rated defense styl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0*, 333-338.
- Cain, N. M., Pincus, A. L., & Ansell, E. B. (2008). Narcissism at the crossroads: Phenotypic description of pathological narcissism across clinical theory, social/personality psychology, and psychiatric diagno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638-656.
- Cohen, J. (1960). A coefficient of agreement for nominal scal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0*, pp. 37- 46.
- Cooper, A., & Ronningstam, E. (1992).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A. Tasman & M. B. Riba (Eds.) *Review of psychiatry, Volume 17*(pp.80-97).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Dimaggio, G., Semerari, A., Falcone, M., Nicolò, G., Carcione, A., & Procacci, M., (2002). Metacognition, States of mind, cognitive biases, and interpersonal cycles: Proposal for an Integrated Narcissism Model.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12*, 421-451.
- Dimaggio, G., Semerari, A., Carcione, A., Nicolò, G., & Procacci, M. (2007).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Model and treatment. In Dimaggio, G. (Ed.) *Psycho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Metacognition, States of Mind and Interpersonal Cycles*, 81-115. London and Newyork: Routledge.
- Dimaggio, G., Nicolò, G., Fiore, D., Centenero, E., Semerari, A., Carcione, A., & Pedone, R. (2008). States of mind in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ree psychotherapies analyzed using the grid of problematic states. *Psychotherapy Research, 18*, 466-480.
- Dunnett, G. (1988). *Working with peopl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23.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 Feixas, G., Geldschläger, H., Neimeyer, R. (1992). Content analysis of personal constructs.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15*, 1-19.
- Feixas, G., Erazo-Cacedo, M. I., Harter, S. L., & Bach, L. (2008). Construction of self and others in unipolar depressive disorders: A study using repertory grid techniqu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2*, 386-400.
- Feixas, G., Moliner, J. L., Montes, J. N., Mari, M. T., & Neimeyer, R. A. (1992). The stability of structural measures derived from repertory grids. *International Journal of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2*, 49-54.
- Fransella, F., Bell, R., & Bannister, D. (2004). *A manual for repertory grid technique(Second edition)*. England: John Wiley & Sons.
- Gabbard, G. O. (2005). 역동정신의학 [*Psychodynamic psychiatry in clinical practice : the*

- DSM-IV edition*. (이정태, 채영래 공역. 서울: 하나의학사. (원전은 1995에 출판)
- Guidano, V. F. (1987). *Complexity of self*. New York: Guilford Press.
- Gunderson, J., Ronningstam, E., & Bodkin, A. (1990). The diagnostic interview for narcissistic pati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7, 676-680.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epper, E. G., Gramzow, R. H., & Sedikides, C. (2010).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 enhancement and self protection strategies: An integrative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78, 781-814.
- Kelly, G. A. (1955).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New York: Norton.
- Kernberg, O. F. (2008). 경계선 장애와 병리적 나르시시즘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윤순임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75에 출판)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andfield, A. W. (1971). *Personal construct systems in psychotherapy*. Chicago: RanMcNelly.
- Lynam, D. R., & Widiger, T. A. (2001). Using the Five-Factor Model to Represent the DSM-IV Personality Disorders: An Expert Consensus Approac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 401-412.
- Mackay, N. (1992). Identification, Reflection, and Correlation: Problems in bases of repertory grid meas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5, 57-75.
- Mahoney, M. J. (1988). Constructive metatheory, I: Basic features and historical found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1, 299-315.
- Mahoney, M. J. (2003). Constructivism: History and current relevance. In M. J. Mahoney (Ed.) *Constructive Psychotherapy*. New York and London: The Guilford Press.
- Miller, J. D., & Campbell, W. (2008). Comparing clinical and social-personality conceptualization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76, 449-476.
- Millon, T., Grossman, S., Millon, C., Meagher, S., & Ramath, R. (2004). Assessment and therapy of the personality disorders. In T. Millon (Ed.) *Personality disorders in modern life*(pp. 117-148). John Willy & Sons.
- Morf, C. C., & Rhodwalt, F. (2001). Unraveling the paradoxes of narcissism: A 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 *Psychological inquiry*, 12, 177-196.
- Morrison, A. P. (1989). *Shame: The underside of narcissism*. Analytic Press.
- Neimeyer, G. J. (1992). Personal constructs and vocational structure: A critique of poor reason. In R. A. Neimeyer & G. J. Neimeyer (Eds.), *Advances in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volume 2* (pp. 91-120). Greenwich, CT: Jai Press.
- Nowak, A., Vallacher, R. R., Tesser, A., & Borkowski, W. (2000). Society of self: The emergence of collective properties in

- self-structure. *Psychological Review*, 107, 39-61.
- Pincus, A. L., & Lukowitsky, M. R. (2010). Pathological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 421-446.
- Pincus, A. L., Ansell, E. B., Piementel, C. A., Cain, N. M., Wright, A. G. & Levy, K. N. (2009). Initial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21, 365-37.
- Ramsey, A., Watson, P. J., Biderman, M. D., & Reeves, A. L. (1996). Self-reported narcissism and perceived parental permissiveness and authoritarianism.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7, 227-238.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 Robins, R. W., Tracy, J. L., & Shaver, P. R. (2001). Shamed into self-love: Dynamics, roots, and functions of narcissism. *Psychological Inquiry*, 12, 230-236.
- Ronningstam, E. (2009).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Facing DSM-V. *Psychiatric Annals*, 39, 111-121.
- Rosenthal, S. A., & Hooley, J. M. (2010). Narcissism assessment in social-personality research: Does the association between narcissism and psychological health result from a confound with self-estee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 453-465.
- Suedfeld, P. (1994). President Clinton's policy dilemmas: A cognitive analysis. *Political Psychology*, 15, 337-349.
- Taylor, D. S. (1990). Making the Most of your Matrices: Hermeneutics, Statistics, and the Repertory Grid Method. *International Journal of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3(1), 105-119.
- Taylor, J. L., Morley, S., & Barton, S. B. (2007). Self-organization in bipolar disorder: Compartmentalization and self-complexi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1, 83-96.
- Wiggins, J. S. (1994).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Young, J. E. (1990).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s Press.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5). 심리도식치료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권석만, 김진숙, 서수균, 주리아, 유성진, 이지영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3에 출판)
- Zeigler-Hill, V., Clark, C. B., & Pickard, J. D. (2008). Narcissistic subtypes and contingent self-esteem: Do all narcissists base their self-esteem on the same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76, 753-774.
- Zeigler-Hill, V., Green, B. A., Arnau, R. C., Sisemore, T. B., & Myers, E. M. (2011). Trouble ahead, trouble behind: Narcissism and early maladaptive schemas.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2, 96-103.

원 고 접 수 일 : 2016. 02. 29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5. 25  
게 재 결 정 일 : 2016. 07. 12

## Study on Cognitive Hierarchy of Pathological Narcissism Subtypes: Applying Constructivist's Repertory Grid Technique

Seon Jeong Hwang

Traveltomind Counseling Institute

Seong Ho Ch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aim of this study were to categorize subtypes of pathological narcissism and examine the cognitive hierarchy of each subtype. Out of 128 individuals who met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cut off score, 93 subjects were selected through repertory grid interview. Cluster analysis using two factors from each category, cognitive contents (grandiosity, vulnerability) and cognitive structures (differentiation, integration) to identify how subjects are subdivided. As a result, four significant subtypes were verified: Differentiated, Grandiose Integrated, Vulnerable, and Vulnerable Grandiose. To investigate the cognitive hierarchical characteristics of each subtype, core constructs were drawn from the repertory grid technique and subsequently rated in two categories: grandiosity and vulnerability. One-way ANOVA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influence on intensity, CTR, and distances of each core construct of subtypes. Results indicated that each subtype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regarding intensity and CTR of core construc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ddressed.

*Key words* : subtypes of pathological narcissism, repertory Grid technique, cognitive hierarchy, core constructs

## 부 록

### 1. 웅대성 및 취약성 평정을 위한 개념 정의<sup>6)</sup>

#### 1) 웅대성 요인

##### (1) 개념정의

무한한 성공, 힘, 아름다움 등 자신에 대한 과장된 이미지와 함께 자신이 우월하고 특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이런 우월한 느낌을 전시하고 과시하려는 태도로 인해 외향적이고 자신만만해 보인다. 자신의 웅대함을 스스로 과장해서 지각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웅대함에 대해 끊임없이 주목하고 경탄하고 존경하기를 갈구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유한 욕구나 선호에 대해서는 공감에 부족하고 자신의 웅대성을 찬탄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착취적으로 대한다. 과장된 자기이미지에 손상이 되면 격노, 공격성, 굴욕감 등의 정서에 휩싸이게 된다.

##### (2) 세부 요소

- 자신에 대한 과장된 지각: 자신이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공상을 하는 것. 자신은 완벽하고 결점이 별로 없다는 느낌을 갖는 것
- 우월성: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평범한 사람들은 갖지 못한 것을 자신은 갖고 있다고 생각

6) 웅대성 및 취약성 개념 정의 지침에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강선희(2002), DSM-IV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기준(APA, 1994), Akhtar와 Thomson(1982), Emmons(1984), Kernberg(1975), Kohut(1977), Millon 등(2004), Morf와 Rodewalt (2001), Raskin과 Hall(1979), Ronningstem(2009), Pincus 등(2009)

는 것. 사람들을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

- 과시/노출성: - 자신에 대한 웅대한 지각과 우월성을 기꺼이 걸으며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 -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의 자랑거리를 내 보이려고 하는 것. - 자신만만하고 과시적이며 거만한 것
- 경탄(respect)에 대한 갈구: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 외모, 성취업적 등에 대해 경탄하고 존경하는 공상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
- 착취성: 자신이 주목받고 경탄받고 싶은 열망 때문에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에는 공감이 되지 않는 것,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기꺼이 다른 사람의 욕구는 무시할 수 있는 것. -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 2) 취약성(vulnerability) 요인

##### (1) 개념정의

자신이 우월하고 특별하다는 느낌과 이런 웅대한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기꺼이 이용하지만 이는 드러내지 않고 은근한 방식을 취한다. 자신에 대한 웅대한 환상과 과장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과도한 수치심을 갖고 있고 이를 억제한다. 자존감을 유지하는데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 혹은 타당화가 있어야만 하고, 타인으로부터 이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허하고 우울하고 불안해지며 사회적으로 회피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자존감에 취약해지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2) 세부 요소

- 승인(approval)에 대한 갈구: 중요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가치있는 사람이라는 확인을 시켜주지 않으면 편치 않은 것.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필요한 것. 사람들에게서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하면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기 어려운 것
- 과민/취약성 및 평가회피: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면 두고두고 생각하고 괴로워 하는 것. 다른 사람의 비평이나 비판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가받는 상황을 아예 피하게 되는 것
- 소심/자신감 부족: 소심하고 우울, 불안하고 수줍어하는 것.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에 부

합하지 않으면 무력하고 공허하게 느끼며 그런 자신의 감정에 대해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것. 부정적인 자기상을 타인에게 자주 보고하는 것

- 불안정한 자존감: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열등감을 느끼는 것. 자신이 힘과 명예를 갖지 않으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것. 사람들이 자신의 결점을 알아차릴까 두려워하는 것
- 미묘한 특권의식: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신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바라는 것.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미묘하고 은근히 갖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수치스러움

2. 평정 예시(사례 78번 / 평정자 1)7)

중심 구성개념	반대 구성개념	평정
논리적인 "부정적 감정이 생겨도 근거를 얘기할 수 있는"	즉흥적인	G
의지가 강한	의지가 약한	G
호불호가 명확한	우유부단한	G
소심한 "하고 싶은 말을 분명히 하지 않고 돌려서 하는"	대범한	V
극단적인 "흑백논리를 많이 쓰는"	중간이 있는	ns
자기를 비하하는 "실력으로 잘 된 것도 운이라 생각하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V

7) 레퍼토리 그리드의 구성개념은 원래 양극성을 지닌 쌍으로 도출하도록 되어 있다. 중심 구성개념 평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반대 구성개념과 참가자의 언어반응들(" ")도 참고하였다.